

제5차 한·일·중 정상회의 공동선언문

1. 우리 대한민국, 일본국, 중화인민공화국 지도자들은 3국 협력 증진과 공동발전 촉진 및 지역과 세계 전체의 안정 및 발전, 번영에 기여하기 위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제5차 3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2년 5월 13일 중국 베이징에서 회동하였다.
2. 우리는 1999년 3자 협력이 시작된 이래 그리고 특히 2008년 최초로 여타 다자회의와 독립적으로 개최한 3국 정상회의 이래 3국 협력이 이룩한 성과를 환영하였다. 우리는 한·중·일 동반자 관계를 위한 공동성명(2008), 한·중·일 협력 10주년 기념 공동성명(2009), 3국 협력 Vision 2020 (2010)의 이행 및 3국 협력이 3국 국민들에게 가져온 광범위한 혜택을 만족스럽게 평가하였다.
3. 우리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과 선진국의 채무위기 심화, 서아시아·북아프리카의 불안정 및 동아시아의 지속적인 성장 모멘텀으로 인해 3국 협력 증진이 3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기여하고 동북아시아 경제통합을 가속시켜왔음을 인식하였다. 3국 협력은 동아시아 협력에 신선한 활력과 생명력을 부여할 것이며,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 및 번영에 기여하고, 세계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3국 협력을 전략적인 관점에서 조망·접근할 것임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상호 존중, 평등, 공동이익, 개방성 및 투명성을 기반으로 3국 관계를 선린, 상호신뢰, 포괄적 협력, 상호주의, 호혜 및 공동발전의 방향으로 진전시켜 나갈 것이다.
4.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3국간 미래지향적인 포괄적 협력 파트너십을 더욱 강화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비공식 번역본]

정치적 상호 신뢰의 증진

5. 우리는 고위급 접촉을 보다 확대해 나가고 3국 관계와 꾸준한 협력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이고 강력한 정치적 지원을 제공할 것임을 강조하였다.
6. 우리는 올해 개최된 3국간 제1차 아시아 정책대화 및 아프리카, 중남미, 대테러 문제에 관한 협의의 긍정적 성과를 환영하였다. 우리는 3국이 상기 회의체를 지속적으로 순환 개최하고 더 많은 분야에서 소통 및 공조 강화 방안을 적극 모색하며, 꾸준히 상호 이해와 신뢰를 증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을 밝혔다.
7. 우리는 재난 구호, 원자력 안전, 지진 공동연구 분야에서의 광범위한 3국간 협력에 주목하였다. 우리는 해적, 에너지 안보, 사이버 안보, 전염병, 테러리즘 및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등 비전통적 안보 이슈에 관한 3국간 협력 증진을 장려하였다.
8. 또한 우리는 특히 동일본 대지진 이후 2011년 정상선언문 및 부속 문서에 따라 재난관리 및 원자력 안전 분야의 협력이 강화된 것을 환영하였다. 일본은 대한민국과 중국 정부 및 국민들이 보내준 지원에 대해 사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과 중국은 참사를 겪은 일본 동북 지방에서 2012년 7월 “대규모 자연재해에 관한 고위급 국제회의”를 개최하고자 하는 일본의 구상에 지지를 표명하였다.
9. 우리는 최근 중국과 일본이 해상수색구조협정 체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을 환영하고, 해상안전 확보를 위한 3국간 수색·구조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비공식 번역본]

10. 우리는 2011년 9월 대한민국 서울에서 3국 협력 사무국이 출범한 것을 환영하고, 사무국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3국 협력 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대해 지지를 표하였다.

경제·통상 협력 심화

11. 우리는 경제·통상 관계를 더욱 강화하고 이익의 수렴을 심화할 것이다. 우리는 금년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9차 3국 통상장관회의의 성과를 승인하고, 매력적인 무역·투자 환경 조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임을 재강조하였다.
12. 우리는 3국 FTA 산관학 공동연구의 결론 및 권고를 환영하였다. 우리는 대한민국, 중국, 일본간의 FTA 출범이 3국의 경제성장 및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통상장관들의 연내 3국 FTA 협상 개시 권고를 승인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3국은 국내절차 및 실무협의를 포함한 준비 작업에 즉시 착수하여야 할 것이다.
13. 우리는 3국간 투자 증진, 원활화 및 보호에 관한 협정 서명을 환영하였고, 동 협정이 3국간 상호 투자의 증진, 원활화 및 보호를 위한 강력한 추진력이 될 것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우리는 최대한 가까운 시일에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가능한 빨리 각국의 국내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하였다.

[비공식 번역본]

14. 우리는 역내 금융시장의 안정성 확보 및 지속가능한 성장 추구를 위한 3국의 역내 금융협력 증진에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기금규모 두 배 증액, IMF 비연계비중 확대 및 위기에방 기능 도입 등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다자화(Chiang Mai Initiative Multilateralization) 체제 강화에 있어 상당한 진전을 이룬 것을 환영하였다. 또한 ASEAN+3 거시경제감시기구(AMRO)의 성공적인 출범과 아시아채권시장 발전구상(ABMI)의 확대를 환영하였다.
15. 우리는 3국간 금융협력 제고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역내 금융시장 안정에 크게 기여했던 작년도 3국간 양자 통화스왑 네트워크의 확대를 환영하였다. 우리는 외환당국간 상대국가의 국채 투자를 증진하고, 정보교환 등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3국간 역내 경제관계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16. 우리는 2011년에 개정된 3국 세관 협력을 위한 행동계획을 관계 당국이 적극 이행하고, 지적재산권 보호, 통관수속, 무역촉진, 종합 인증우수업체(Authorized Economic Operator: AEO) 상호 인정, 통관 집행, 정보 및 인적자원개발 등 분야에서 실용적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을 장려하였다.
17. 우리는 상품 안전성에 관한 조치는 WTO/SPS 및 WTO/TBT의 요건에 부합해야하며, 보건과 동식물 건강 및 위생 여건을 개선하고 3국간 건전한 무역 발전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재확인하였다.
18. 우리는 건전한 통상 발전을 촉진하고 이에 기여하기 위해 3국이 품질 검사 및 검역에 대한 협의 및 협력 메커니즘을 실행하도록 장려하였다.

[비공식 번역본]

19. 우리는 3국이 육해복합운송 발전 및 동북아 물류정보서비스 네트워크 구축에 있어서 이룬 진전을 환영하였고, 역내 육해복합운송 협력의 포괄적 발전 및 네트워크 서비스의 신속한 확대를 장려하였다.
20. 우리는 3국의 사회·경제 발전을 위한 정보통신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교류와 협력 증진에 대한 지지를 밝혔다.
21. 우리는 3국간 경제·통상 협력의 심화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환황해 경제기술교류회의와 같은 3국간 소지역 협력을 장려하고 지지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 촉진

22. 우리는 경제발전과 환경보호의 조화와 더불어 3국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순환경제 개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한·중·일 순환경제시범단지 구축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3국 순환경제시범단지의 국내 후보지 선정을 위해 노력해온 중국에 사의를 표명하였으며, 조속한 시일내 순환경제시범단지가 시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한편 우리는 심도 있는 협의를 지속하고 각국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순환경제시범단지 건설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비공식 번역본]

23. 우리는 올해 5월 베이징에서 개최된 제14차 3국 환경장관회의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고, *환경협력을 위한 3국 행동계획(2010-2014)* 이행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전자폐기물(e-waste)을 비롯한 국가간 불법 폐기물 이동을 공동으로 방지하기 위한 3국간 협력 메커니즘 설립에 진전이 있음을 기쁘게 생각하고, 동 메커니즘을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 분야에서 더 많은 공동연구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였다. 우리는 황사가 역내 환경적 도전 중 하나라는 점에 주목하고, 3국간 황사 관련 공동 협력 강화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우리는 역내 월경성 대기오염 대처의 중요성을 인식하였으며, 3국이 환경 보호 기술의 교류 및 이전 뿐만 아니라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 공유(ABS) 협력에 참여하기를 장려하였다. 우리는 제14차 3국 환경장관회의에서 지지한 일본의 2012년 재난 대응조치 세미나 개최 제의를 환영하였다.
24. 우리는 녹색·저탄소성장이 지속가능한 개발 및 경제성장과 환경 보호의 조화에 매우 중요하다는 데 의견을 함께 하였다. 2011년 제4차 3국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재생 에너지와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관련, 우리는 2012년 3월 일본에서 개최된 녹색기술 포럼, 젊은 정책입안자들간의 활발한 인적 교류, 청정에너지장관회의·APEC IPEEC와 같은 기존의 국제적 틀을 활용한 협력 등을 포함하여 동 문서에 기초하여 녹색·저탄소 성장을 실현하기 위한 3국간 협력을 환영하였다.
25. 우리는 3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막대한 잠재력과 도전요인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2011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호놀룰루 선언과 4월 15일 일본 도쿄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저탄소성장 파트너십 각료급대화의 결과를 환영하였으며, 이와 같은 체제 내에서 협력 심화를 위한 대화가 지속되기를 희망하였다.

[비공식 번역본]

26. 우리는 여타 국제기구 및 개발 이행 기관과 협력하여 개발도상국들의 녹색성장 전략을 지원하는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였다.
27. 우리는 아이치 생물다양성 목표 달성 및 접근과 이익 공유(ABS)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 조기 발효를 위한 3국의 노력을 환영하였고, 긴밀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28. 우리는 작년 11월 제4차 동북아 원자력안전규제책임자회의 일본 개최 및 동 회의에서 이루어진 진전을 환영하였다. 우리는 3국의 원자력안전 규제당국이 한·일·중 원자력 안전협력 이니셔티브에 첨부된 행동계획(List of Action Items)에 따라 실질적으로 협력해 나가도록 장려하였다. 우리는 또한 국제 원자력 안전의 진전을 위해 2012년 12월 개최될 후쿠시마 장관급회의의 성공이 중요함을 인식하였다.
29. 우리는 잠재적인 대규모 지진, 쓰나미, 화산폭발 등 문제를 다루기 위한 3국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3국간 여행객 수 증가 및 무역량 증가에 비추어 기상 관측·예측 정보 교류가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고, 세계기상기구(WMO) 틀 안에서 지역 기상 정보의 교환 방안 논의를 장려하였다.
30. 우리는 3국 보건장관 정례회의체의 중요성과 전염병 및 비전염병 예방과 관리, 식품 안전, 임상실험, 응급상황 준비 및 대응, 보건 분야 새천년개발목표(MDGs)에 관한 실용적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였다. 우리는 국민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 보건 협력을 증진시켜 나갈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비공식 번역본]

31. 우리는 3국의 과학·기술 수준, 혁신 능력, 산업·기술 경쟁력 강화에 있어서 공동 연구협력 프로그램 및 A3 예측 프로그램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으며, 3국이 이러한 두 프로그램의 효율성 및 효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재정적·인적 투자를 늘리도록 장려하였다.
32. 우리는 지속 가능한 개발 실현에 있어서 양성평등과 여성권한 강화가 중요함을 재차 확인하고, 양성평등 증진을 위한 3국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33. 우리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면서, 에너지 시장의 안정을 위한 협력 증진을 추구하기로 하였다.
34. 우리는 지속가능한 개발과 농업 생산 증대 및 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4월 14일부터 15일까지 제주도에서 열린 제1차 3국 농업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우리는 동 회의에서 3국 농업장관회의 연례 개최 결정을 포함한 농업협력 공동코뮤니케가 채택된 것을 평가하였다.
35. 우리는 농업, 지속가능한 산림관리, 사막화 방지 및 야생동식물 보전에 관한 3국 협력 강화의 중요성을 재강조하고, 부속문서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동 협력을 제고하기로 결정하였다.

[비공식 번역본]

사회적, 인적, 문화적 교류의 확대

36. 우리는 2008년 이후 3국이 계획, 주관, 이행한 수많은 문화교류가 3국 국민간 이해와 상호신뢰 및 우의를 효율적으로 증진시켜 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우리는 3국 문화 관계부처들이 적절한 시기에 “동아시아 문화도시” 프로그램 개시 등을 위해 더 많은 활동을 전개하고 중장기적으로 “한·일·중 문화예술 축제” 프로젝트에 관한 협의에 착수할 것을 장려하고 지지하였다. 우리는 3국이 문화유산 보호와 문화산업 발전에 있어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도록 장려하였다.
37. 우리는 3국간 교육협력을 더욱 증진시키기 위해 3국 교육장관 회의체 구축 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우리는 3국이 개시한 대학간 교류 시범사업 “CAMPUS Asia”를 환영하고, 동 사업의 성공을 기원하였다. 우리는 3국이 동 시범사업을 통해 아시아에서 대학교육의 질을 제고하는 틀을 마련하는 데 함께 기여하고, 보다 유능한 인재들을 더 많이 양성할 수 있도록 동 사업의 규모와 범위를 더욱 확장할 것을 장려하였다.
38. 우리는 3국 국민간 이해와 상호신뢰를 증진하는 방안으로서 공공 외교의 중요성에 인식을 같이 하였다. 우리는 3국 외교부가 동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적절한 시기에 3국 공공외교 포럼에 관한 협의에 착수할 것을 장려하고 지지하였다.
39. 우리는 3국간 관광교류의 중요성을 확인하였으며, 3국이 공동의 미래 관광 비전을 공유하면서 장기적 관점에서 각국의 절차 검토를 포함한 다양한 조치를 통해 관광을 촉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함께 기울여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우리는 3국이 2015년까지 3국간 관광객 2,600만명 목표 달성을 위해 비자유건을 더욱 완화하고 자매/우호 도시 교류를 확대하도록 장려하였다.

[비공식 번역본]

40. 우리는 2005년 3국 인사정책 네트워크 메커니즘 수립 이후 3국 인사장관회의 개최 및 청년 공무원 교류프로그램 실시를 통해 각국의 인사행정 분야 개혁·발전을 효율적으로 촉진시켜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3국이 동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를 기대하였다.
41. 우리는 중국과 일본의 중·일 관계정상화 40주년 기념 친선교류 활동, 한국과 중국의 한·중 외교관계 수립 20주년 기념 우호교류 및 한국과 일본의 FIFA 월드컵 공동개최 10주년 기념행사를 환영하였다. 우리는 각계 각층간 친선교류 활동, 특히 3국 젊은 세대들의 교류를 환영하였으며, 평화와 우정의 정신 함양, 국민들간 우정 증진, 3국의 우정과 협력을 위한 사회적 기반 강화를 위해 3국의 언론매체, 학계, 재계, 스포츠계 및 기타 민간 교류를 장려하였다.

지역적·국제적 문제에서의 소통 및 공조 강화

42. 우리는 진화하는 동아시아 지역구조 속에서 동아시아의 평화·안정·번영 실현을 위한 3국 협력 및 ASEAN+1, ASEAN+3, 동아시아 정상회의(East Asia Summit), ASEAN 지역안보 포럼(ASEAN Regional Forum),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등 지역협의체의 상호 보장 및 보완 역할을 강조하였다.

[비공식 번역본]

43. 우리는 지역협력에서의 중요한 파트너인 ASEAN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지역협력에서의 ASEAN의 주도적 역할에 대한 지지를 재차 확인하였다. 우리는 ASEAN 국가들의 발전과 공동체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 노력할 것이며, ASEAN 연계성 마스터플랜(ASEAN Master Plan on Connectivity) 이행을 위한 ASEAN의 노력을 지원하고, 식량·에너지·과학기술·환경보호·재난관리 등 영역에서 ASEAN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ASEAN+3 틀 내에서 금융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ASEAN과 공조할 용의를 확인하였다.
44. 우리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진전과 관련하여, 동아시아 자유무역지대(EAFTA) 및 동아시아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CEPEA)의 이니셔티브를 고려하여, 역내 포괄적 경제 파트너십에 대한 논의를 가속화하여 협상을 개시할 수 있도록 ASEAN Plus Working Groups이 즉각 설립될 필요가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45. 우리는 3국이 공동의 발전을 촉진하고 호혜와 상생의 결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 금융리스크, 에너지·식량 안보, 공중보건, 자연재해, 테러리즘, 군축, 대량살상무기(WMD) 확산과 같은 범세계적 문제에 공동 대처하기 위한 소통과 공조 강화를 지지하였다.
46. 우리는 2015년까지 새천년개발목표(MDGs)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재확인하였다. 우리는 새로운 범세계적 문제의 맥락에서 새천년개발목표 이행 현황 및 이에 대한 평가를 충분히 고려하여 2015년 이후의 글로벌 개발의제 논의를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이와 관련한 UN의 주도적 역할을 지지하며, G20 개발의제가 이러한 국제적 노력을 증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

[비공식 번역본]

47. 우리는 핵 안보를 더욱 강화할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것을 환영하였다. 일본과 중국은 한국의 의장국 수행을 축하하였고, 한국은 정상회의시 일본과 중국의 건설적인 기여에 사의를 표하였다.
48. 우리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여 금년중 향후 개최 예정인 G20 정상회의, APEC 정상회의, ASEM 정상회의, ASEAN+3, 동아시아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적극 기여할 수 있도록 함께 협력해 나갈 것이다.
49. 우리는 G20의 역할 증진을 위해 노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리는 경제회복 및 성장 촉진, 글로벌 금융안정성 확보, 합의된 일정에 따른 2010 IMF 쿼터 및 거버넌스 개혁 이행, 무역 보호주의 저지, 개발의제 증진 등 가장 시급한 세계경제 현안에 초점을 두고 G20 로스카보스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기여할 것이다. 우리는 강력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적인 글로벌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G20 정상회의 과정을 함께 진전시킬 수 있도록 상호 긴밀히 협력할 것이다.
50. 우리는 2013년 대한민국에서 개최될 제6차 3국 정상회의를 기대한다.

/끝/